

“양당, 원 구성 합의를... 어떤 경우에도 회의 진행”

박병석 국회의장, 원 구성 협상 중재 ‘21대 국회 개원’ 오늘 강행 예고 통합당-민주당, 기싸움 팽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연이어 만나 중재에 나섰음에도 한 치 양보 없는 원 구성 협상이 이어지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과 만나 원 구성 협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에서 박 의장은 “그동안 대화를 많이 했다만 아직 진전이 없다. 국민께서는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제는 실망을 나타내는 것 같다”며 조속한 원 구성 합의 안 도출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여야간 한 치 양보 없이 원 구성 협상이 이어지는 점도 언급하며

“(이렇게 되면) 양당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오늘은 각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꼭 합의에 이를 것을 다시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모두 노력해 합의안을 마련해야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여야 지도부

에 무언의 압박도 했다. 하지만 여야는 박 의장 요청에도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이 합의해서 하지는 것은 좋는데, 양보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힘없는 사람이 양보할 건 없다. 내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이 ‘12일 국회 개원’을 예고한 데 따른 비판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12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뽑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는지 알아야 대내 경선에서 상임위원장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 (상임위원) 배정표도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협력하려고 해도 (상임위원 배정표) 명단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 책임론도 제기했다.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사수’를 주장하면서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난항인 점에 대해 겨냥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비판에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국회 개원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상임위원 배정표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 데 대해 “일을 하면서 현명하지 못한 태도와 자

세는 결과가 뻔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라며 예들러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통합당을 겨냥해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민주당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고 일하는 국회를 세운다는 각오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 단독 개원’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다.

한편, 여야는 날 선 공방과 별개로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이들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간 별도로 회동을 하고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대화 채널은 닫히지 않은 셈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산업부 ‘석회석 안정수급’ 4자 MOU 체결

포스코·현대제철·광업협·광물자원공 협력업체와 ‘상생’... 효율적 광산개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광업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4자간 ‘국내 석회석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납품하는 석회석 광산(14개)을 대표해 한국광업협회가 안정적인 국내 석회석 수급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했고 양사가 이를 수용해 이뤄졌다.

그간 석회석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철강업계 비상경영체제

돌입으로 석회석 물량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일본과 베트남 등 고품위 해외 석회석 수입 증가가 향후 국내 석회석 물량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국내 석회석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은 장기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업계는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해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광산개발이 가능할 전망

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우 공급망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지원실장은 “석회석이란 광물을 매개체로 철강업계와 광업계가 상생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협약식이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협력사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광산개발을 위한 현대화장비보급과 스마트마ining 등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 기자 hys@



aT 이기우 수급이사(왼쪽)가 전남 신안 마늘 농가 한 농부와 대화하고 있다. /aT

마늘 생산농가 지원 정부수매물량 확대

aT, 전남신안 등서 1000톤 추가배정

지난겨울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생산과잉과 소비침체로 가격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생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수매물량을 당초 1만톤에서 1000톤을 추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마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도종 마늘 1000톤을 추가 배정하기로 하고, 지난 9일 전남 신안을 시작으로 남부지역 수매에 나섰다.

남도종 마늘은 알 크기가 작지만 맵고 알싸해 김장 등의 양념용으로 널리 쓰인다. 그런데 지난겨울 이상고온 현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자라 마늘이 벌어지는 2차 생장, 이른바 벌마늘 피해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나머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aT는 1등급 상품만 수매했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수매 품위를 다양화해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도종 마늘 역시 생산농가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배정을 하게 됐다.

/한용수 기자

韓-스웨덴, 코로나 방역·경제협력 논의

산업부, 화상회의 진행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스웨덴 안나 할베리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양국간 경제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자동차(볼보), 통신(에릭슨), 제약·바이오(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면서도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다.

유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방역과 함께 경제 활동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스웨덴 양국이 △인적·물적 교류 보장 △방역 지식 공유 △디지털 경제 등 3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향후 WTO, APEC, G20 등 다자채널을 통해 필수 인력 이동,

의약품 등 필수재화의 교역 원활화 등 주요 팬데믹 이슈에서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 모델을 수립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스웨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용수 기자

고용노동부

산업 인재양성 지침서 NCS 138개 확정·고시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신규 개발한 20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이미 개발된 NCS 중에 개선 작업을 완료한 138개의 NCS를 12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으로 직업·직무 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이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지침서다.

이에 따라 작년 확정 고시된 NCS에 이어 이번 고시로 현재까지 총 1022개 NCS가 개발됐으며, 새롭게 개발된 20개 NCS는 대국민 의견수렴, NCS 품질 관리위원회 및 자경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한용수 기자

산업부, 오늘 캄보디아 FTA 관련 공정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정회를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정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캄보디아 FTA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와의 교역 자유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

상회의를 계기로 FTA 공동 연구 개시를 선언한 후 연구를 진행해왔다.

양국은 그간 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 간 3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5월말 공동연구를 공식 완료하고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양국이 각각 추진기로 했다.

이날 공정회에서는 그간의 추진경과와 ‘한-캄보디아 FTA의 경제적 효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과 FTA 활용 유망분야’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